

남원 그린바이오 기업 성장 지원 강화

전북테크노파크, 시군구연구산업육성사업 지원기업 간담회 개최... 맞춤형 지원 확대 · 지역혁신 생태계 조성 박차

전북테크노파크가 남원지역 그린바이오 기업의 성장 기반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혁신 생태계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북테크노파크는 지난 24일 남원 스위트호텔에서 남원시바이오산업연구원, 캠퍼스종합기술원과 함께 '2026년 남원시 시군구연구산업육성사업 지원기업 2차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시군구연구산업육성사업에 참여하는 기업들의 사업 수행역량을 높이고, 기업별 맞춤형 지원체계를 강화해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성과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지원기업 10개사의 과제책임자와 실무담당자를 비롯해 기술닥터, 전북테크노파크, 남원시바이오산업연구원, 캠퍼스종합기술원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사업 추진 현황



전북테크노파크는 지난 24일 남원 스위트호텔에서 남원시바이오산업연구원, 캠퍼스종합기술원과 함께 '2026년 남원시 시군구연구산업육성사업 지원기업 2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을 공유하고 기업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기관 간 협력체계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시군구연구산업육성사업은 지역 특화자원을 활용해 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산업의 자생력을 강화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지역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이다.

전북테크노파크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업들의 어려움을 사전에 해소하고 수행기관과 참여기업 간 긴밀한 소통체계를 구축해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한편 시군구연구산업육성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가 지원하는 지역산업 육성사업으로, 남원시의 미래 유망 바이오소재를 활용한 그린바이오 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기업 사업화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고부가가치화 컨설팅, 생산환경 개선, 제품 리뉴얼, 인증, 지식재산권 확보, 기술컨설팅, 마케팅 등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지역기업의 성장 기반 마련에 힘쓰고 있다.

/오상근 기자

농협은행 전북본부, 참프레 현장경영 실시

지역 대표기업 의견 청취 · 지역경제 활성화 위한 금융협력 강화

NH농협은행 전북본부가 지역 대표 식품기업인 ㈜참프레를 찾아 현장경영을 실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력 강화에 나섰다.

농협은행 전북본부는 장길한 본부장이 지난 24일 부안군에 위치한 ㈜참프레 본사를 방문해 생산시설을 둘러보고 경영진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지역 대표기업의 현장 목소리를 직접 듣고 기업의 성장 전략과 금융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기관과 기업 간 협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장 본부장은 이날 생산공정을 둘러보며 생산 및 품질관리 체계를 점검하고, 원가 부담과 소비시장 변화 등 기



업이 체감하는 경영환경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또한 기업 운영에 필요한 금융서비스와 향후 협력 방향에 대해서도 폭넓게 논의했다.

양측은 대내외 경영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지역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금융기관과 기업 간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이 중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오상근 기자

장상만 전북중기청장,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방문

창업기업 현장 점검

장상만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을 방문해 창업지원 인프라를 점검하고 입주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지역 창업 생태계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지난 23일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JICA)을 방문해 창업지원시설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문화콘텐츠 제작시설과 입주기업 현장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창업지원기관의 운영 실태와 기업지원 기반을 확인하고, 창업기업들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과 정책 수요를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됐다.

장 청장은 이날 융합마스터링 스튜디오와 버추얼 프로덕션(VP) 스튜디오



를 둘러보며 첨단 콘텐츠 제작시설이 지역 콘텐츠 기업의 제작 경쟁력 강화와 창작활동 지원에 활용되는 현황을 확인했다.

이어 1인창조기업지원센터 입주기업인 퓨린과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인 ㈜두리온메디컬을 방문해 판로 확대와 사업화 지원 등 기업들이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오상근 기자

JB금융그룹, 2분기 사상 최대 실적 달성

순이익 2196억원... 역대 최대 배당 · 1000억원 자사주 소각 결정

JB금융그룹이 올해 2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두며 상반기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의 순이익을 달성했다. 이와 함께 역대 최대 규모의 분기배당과 자사주 취득·소각을 결정하며 주주환원도 한층 강화했다.

JB금융지주는 지난 23일 2026년 2분기 지배지분 순이익이 2,196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7% 증가

했다고 밝혔다. 이는 2분기 기준 사상 최대 실적이며, 상반기 누적 지배지분 순이익도 3,857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수익성을 나타내는 주요 경영지표도 업계 최고 수준을 유지했다. 자기자본이익률(ROE)은 13.0%, 총자산이익률(ROA)은 1.07%를 기록했으며, 영업이익경비율(CIR)은 지속적인 비

용관리와 안정적인 수익 성장에 힘입어 36.9%를 나타냈다. 보통주자본비율(CET1·잠정)은 12.52%로 안정적인 자본 건전성을 유지했다.

계열사들도 고른 실적을 거두며 그룹 실적을 뒷받쳤다. 전북은행은 546억원, 광주은행은 856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했으며, JB우리캐피탈은 1,041억원의 순이익을 올리며 실적을 견인했다. JB자산운용과 JB인베스트먼트는 각각 4억원과 23억원의 순

이익을 기록했고, 해외 순자회사인 캄보디아 푸농뱅크은행(PFCBank)도 140억원의 순이익을 거뒀다.

JB금융그룹은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와 금리 변동성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서도 수익성 중심의 내실경영 전략을 통해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갔다고 설명했다.

이날 이사회는 주주환원 정책의 일환으로 보통주 1주당 314원의 현금 분기배당을 실시하고, 1,000억원 규모의 자기주식을 취득해 소각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역대 최대 수준의 분기배당과 자사주 매입·소각 규모다.

/오상근 기자

전북테크노파크, 기술혁신허브 2차년도 성과 점검

전북테크노파크가 전북지역기술혁신허브 육성 지원사업의 2차년도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연구개발과 사업화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나섰다.

전북테크노파크는 지난 23일 군산은파팰리스에서 '전북지역기술혁신허브 협의회 중간점검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는 전북특별자치도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전북테크노파크, 전북지역기술혁신허브 사업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해 사업 추진 현황과 향후 추진 방향을

공유했다.

전북테크노파크는 2025년부터 2030년까지 6년간 전북지역기술혁신허브 육성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기술혁신허브 협의회를 출범시키고 중장기 기술혁신 로드맵을 수립했으며, 올해는 전략기술 분야 연구개발의 실행력 제고와 실질적인 성과 창출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참석자들은 2차년도 사업 추진 현황과 분야별 연구개발 및 사업화 성과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참여기관 간 협력체계 강화와 향후 추진 전략을 논의했다. 특히 연구개발과 사업화, 기업지



전북테크노파크는 지난 23일 '전북지역기술혁신허브 협의회 중간점검 워크숍'을 개최했다.

원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협력체계 구축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LFP 배터리 리사이클링 분야에서는 연구개발 추진 현황과 컨소시엄별 협력 성과를 공유하고 과제 수행 과정에서 나타난 성과와 애로사항을 논의했

다. 실리콘 음극재 분야 역시 연구개발 성과와 협력 현황을 점검했으며, 맞춤형 기업지원 플랫폼 운영과 투자·기업 유치 등 이차전지 산업생태계 활성화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오상근 기자

한전 전북본부, 고압 아파트 정전 대응 모의훈련 실시

한국전력공사 전북본부가 여름철 폭염과 집중호우로 인한 아파트 정전 사고에 대비해 고압 아파트 응급복구 지원 모의훈련을 실시하며 신속한 대응체계 점검에 나섰다.

한전 전북본부는 지난 22일 전북 완주군 삼봉지구 푸르지오더퍼스트 아파트에서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들과 함께 '고압 아파트 응급복구 지원 모의훈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집중호우로 단지 내 전기시설이 침수돼 전력 공급이 중단되는 상황을 가정해 실시됐다. 한전과 아파트 관리 주체는 정전 발생부터 복구 완료까지 전 과정을 실제 상황처럼 재



현하며 대응 능력을 점검했다.

훈련에서는 정전 신고 접수와 현장 출동을 시작으로 사고 조사와 유관기관 상황 전파, 합동대책본부 구성, 이동발전차 투입 및 응급지원 설비 설치, 아파트 자체 수전설비 교체 등 단계별 복구 절차를 종합적으로 확인했다.

/오상근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112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 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